
	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
		배포일자	2021년 8월 6일(금) 총 2매	 환경특별시 인천
담당 부서	소상공인 정 책 과	담 당 자	• 소상공인정책팀장 안수경 ☎440-4246 • 담당자 김은정 ☎440-4247	
사진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인천시, 소상공인에 초저금리 정책자금 450억 원 긴급 지원

- 5개 특례보증 사업에 연 1%대 초저금리로 2~3천만 원까지 융자 지원 -
- 사업별로 8.9일부터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신청접수 시작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추가로 연 1%대 초저금리 정책자금 45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.

이번에 지원되는 정책자금은 일자리창출 100억 원, 지하도상가 활성화 100억 원, 청년창업 100억 원, 재개발지역 활성화 50억 원, 골목상권 활성화 100억 원 등 총 5개 특례보증 사업이다.

융자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2천만 원까지(지하도상가 활성화는 최대 3천만 원까지)이며, 인천시가 대출이자를 최대 1~2%까지 대신 부담해 소상공인은 연 1%대의 저렴한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.

대출상환은 1년 거치 이후 4년간(또는 3년간) 매월 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뤄진다. 시는 거치기간동안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이고, 보증수수료도 연 0.8% 수준으로 낮춰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한층 더 덜어줄 예정이다.

다만, 최근 3개월 이내 보증을 이용했거나 동일 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또는 보증제한업종(향락·사행성 등), 보증제한사유(연체·체납 등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.

신청접수는 ①일자리창출, ②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은 8월 9일부터, ③청년창업, ④재개발지역 활성화 특례보증은 9월 1일부터, ⑤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10월 1일부터 진행된다.

신청은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(☎1577-3790)에서 하면 되며,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(www.icsinbo.or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한편, 인천시는 올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을 5차에 걸쳐 2,264억 원 지원했으며, 취약계층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에도 20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.

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“이번 융자 지원이 4단계 거리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”며, “하반기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”고 말했다.